

〈怨歌〉의 재구성

-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에 따른 문학적 해석 - *

고운기**

차례

1. 소급적 연속성
 2. 단속사와 避隱
 3. 誤傳의 實虛
 4. 이야기의 增殖
 5. ‘後句亡’과 ‘吾皇’
- 참고문헌
-

<국문초록>

역사서 기술의 大綱을 『삼국유사』에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狹量은 경계해야 한다. 〈怨歌〉 읽기 또한 그렇다. 信忠의 일은 一然으로부터 무려 600여 년 전이다. 부실한 기록과 오랜 口傳 사이에서 어떤 변이가 일어났는지 측정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일연은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신충과 단속사를 이어보고 싶었을 것이다. 그 의도란 避隱 편에 맞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 찾기였고, 그래서 이야기는 설화적 원리의 작동 아래 증식되어 간다.

두 가지 점을 새로 해석하였다. 첫째, 〈원가〉의 끝에 붙인 ‘後句亡’이다. 사라진 후구의 두 줄은 어떤 내용이었을까? ‘원망하여 노래를 지었다’고 하나, 노래가 원망만을 표현했을 리는 없다. 일연은 신충이 만년에 아름다운 은거의 길로 들어섰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다. 그것이 『삼국사기』의 誤讀이라도 어쩔 수 없다. 오독이라면 분명 흠이 되지만, 오독하지 않았다면 避隱 편에 맞는 아름다운 은거의 길로 들어섰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다. 그것이 『삼국사기』의 誤讀이라도 어쩔 수 없다. 오독이라면 분명 흠이 되지만, 오독하지 않았다면 避隱 편에 맞는 아름다운 은거의 길로 들어섰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다. 장년에서 만년까지 신충의 생애를 縱觀하되, 사라진 후구에 대신할 역할까지 부여해 보고 싶었다. 실제 잃어버린 두 줄은 회한의 영탄 정도였겠지만 말이다

둘째, 贊에서 ‘吾皇’이다. 번역하여 ‘우리 임’이라 하고, 뜻으로는 ‘부처님’으로 본다. 벼슬을 놓고 절로 들어간 신충이 임금을 위해 복을 빌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부처님에게 비

* 이 논문은 2019년 한양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HY-2019).

**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는 것이 당연하다. ‘祝吾皇’은 ‘오황의 (복을) 빈다’가 아니라 ‘오황에게 (복을) 빈다’로 볼 수 있다. 좀 더 부연해 번역하면, “우리 부처님에게 나라와 임금과 백성의 강녕을 빌리.”가 된다. 일언이 생각한 신충의 바른 은거는 이렇다. 그런 신충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원가>의 잃어버린 두 구절을 贊으로 대신해 본 것은 아닐까.

앞에 <원가> 여덟 줄을 놓고 贊의 마지막 두 줄을 “저 편(隔岸), 산 구비는 꿈에 자주 어리니/ 이제부터 길이 항불 피워 부처님께 복 빌리.”와 같이 번역해 이어 보면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隔岸은 隔句처럼 들린다. 굳이 ‘後句亡’이라 밝히면서 두 줄이 사라진 사실을 환기시킨 저변에는 이렇게 補入해 보려는 뜻이 도사려 있는 듯하다. 이것이 <원가>의 재구성이다.

주제어: 怨歌, 信忠, 後句亡, 吾皇, 소급적 연속성

1. 소급적 연속성

새로운 서사 방식으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논의가 활발하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 전통적 서사의 계보에서 嫡子를 차지하기는 어려울 지라도, 이야기를 즐기는 대중의 기호에 영합하는 데 기여하기로는 당분간 이보다 더한 방식이 없을 듯하다.

기실 서사문학¹⁾은 디지털 시대의 스토리텔링을 논하는 대상으로 가장 강회하다. 디지털의 특장과 거리가 먼 근대의 이야기 담론 위에 성립한 것이 서사문학이기 때문이다. 근대의 서사문학은 지은이의 강력한 개성을 바탕으로

1) 여기서 서사문학은 하위 장르상 서사적 특징을 지닌 것 곧 소설과 서사시를 말한다. “아리 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스토리텔링을 보여주기(mimesis)와 말하기(diegesis)라는 두 가지 타입으로 분류했다. 이제까지 이 둘을 결합한 이야기 예술로서 연극이 있었지만 연극은 쉽게 소유하여 어디서나 휴대하며 읽을 수 있는 인체의 기술적 진보에 역행하는 공간적, 시간적 한계를 내포한다.”는 이인화의 지적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인화,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원리」, 『디지털 콘텐츠』<http://www.digital-story.net>, 2003-8(한국디지털스토리텔링학회, 2003) 참조.

독립된 세계를 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할 뿐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매체를 만들어낸 지금의 전달 메커니즘에서 상호작용과 익명의 다중 저자를 부정한다. 어느 한 시대의 모습이 '이야기' 속에 담겨진다는 것이 서사문학의 중요한 특징이다. 여기서 이야기와 화자는 서사문학을 구성하는 두 가지 필수조건이다. 이야기는 시대에 따라 변개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근대 서사문학은 담론이라는 체계화 된 장치 곧 플롯을 통해, 화자는 지은이라는 개성 있는 주체에 의해 강화되었다. 근대 서사문학은 이 두 가지 요건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서사문학의 또 다른 특징으로 이야기가 '언어'로 전달된다는 점을 든다.²⁾ 이야기란 일정한 논리를 지닌 어느 시대의 삶의 내용인데, 그것은 언어를 통해 전달되므로 언어의 주체인 '화자'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서사문학의 중요한 특징은 이야기와 화자와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무한히 펼쳐질 수 있는 '이야기'와 그것을 선택하고 편집하는 '매개자'의 관계이다. 이때 매개자의 기능을 담론(discourse)이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서사장르는 '이야기'와 '담론'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셈이다.³⁾

담론이 끝나는 자리에서 이야기는 비로소 서사문학의 자격을 얻는다. 이야기는 무한한 독립된 세계에 펼쳐져 있는 것이지만 담론에 의해 골격이 선택되고 세부적 잔여물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플롯이라 부를 수 있다. 독자는 플롯을 가지고 비어 있는 부분을 채워 넣음으로써 '이야기 세계'속으로 진입한다. 따라서 플롯 자체는 우리의 상상력에 의해 보충되어야 하는 이야기의 선택된 맥락을 구성할 뿐이다. 우리의 상상력은 작품에 제시된 한도 이상으로 확장할 수 있지만, 그 한계를 통제하는 것 역시 플롯과 화자의 담론이다.⁴⁾

서사문학에서 플롯과 화자와 담론이 이야기를 통제하는 힘은 상상 이상으

2) 나병철, 『문학의 이해』(문예출판사, 1994), 260~261면 참조.

3) 위의 책, 273면.

4) 위의 책, 275면.

로 강력하다. 그러기에 서사문학이 디지털 시대의 스토리텔링을 논하는 대상으로 가장 강력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이렇듯 서사문학의 완고한 틀은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변화하는 환경을 좀체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최근 들어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개념이 적용되는 서사문학을 판타지 소설류의 대중 서사에서 찾아내려 하는 것도 이와 연관이 있다. 이 분야는 상대적으로 근대 서사문학의 자장에서 빗겨나 있기 때문이다.⁵⁾ 그런데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참여한 방식으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 부각되면서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하나의 세계 안에 다수의 스토리(one world, many stories)’를 가지며, 다수로 增殖하는 동안 이런 결과로서 전체 스토리는 ‘부분의 단순 합 그 이상’⁶⁾이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상호작용은 여기서 ‘독자 관객 주체의 적극적 참여’로 ‘함께 쓰기’라는 방법을 만들어낸다.⁷⁾

그런데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대표적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arvel Cinematic Universe)는 그리스 신화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원형들을 통해 연관성’⁸⁾을 지닌다. 새로운 대중 서사가 이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무한한 소재의 발을 개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각종의 구전 자료와 문헌으로 정착된 구비전승물을 떠올리는데, 이들은 이미 오늘날 우리가 논의하는 스토리텔링의 여러 성격을 선형적으로 지니고 있다. “이야기를 듣는 청자들의 반응을 유도하고 참조해 가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스토리텔링은

5) 이인화가 지적인 바대로, “현재의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상호작용성의 이야기 기술이 촉발시킨 즉물적인 흥미와 오락성에 의존하고 있으며, 상호작용성을 이야기 예술 특유의 개성과 흥미, 유장하고 드라마틱한 서사성과 통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인화, 앞의 논문 참조)

6) 영화 <어벤져스>로 잘 알려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arvel Cinematic Universe)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대해 한마디로 ‘홀어져도 살고, 뭉치면 더 잘 산다’는 설명이 인상적이다. 서성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커뮤니케이션북스, 2018), 4~5면.

7) 위의 책, 5면.

8) 조병한, 「아이언맨의 신화적 원형성과 개성화 과정」, 『심리유형과 인간발달』 제21권 제2호(한국심리유형학회, 2020), 2면.

구전으로 전달되는 민담이나 전래동화, 또는 구비문학으로 정착된 고전소설 전수 과정에서 그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다.”⁹⁾는 주장에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이야기를 즐기는 전통적이고 오래된 방식과 닮았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곧 전통적 이야기 구술 방식은 인쇄술의 발달로 잠시 잊혔다가,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다시 이를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캐치프레이즈가 ‘하나의 세계 안에 다수의 스토리’이거니와, 여기서 스토리는 단편화 된 형태로 존재하는데, 단편화의 요소 가운데 나는 소급적 연속성(retroactive continuity)에 주목하고자 한다.¹⁰⁾ 소급적 연속성은 ‘이전 서사를 통해 확립된 서사 요소의 사후 변경’이며, ‘추가 스토리 요소를 위해 역사를 수정하거나 혹은 이전 사건에 대한 설명을 수정’¹¹⁾하는 것이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극적 장면을 만들어 낼 때 쓰는 수법이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논의로 들어가 보자. 『삼국유사』에서 원형을 추출하여 하나의 소재를 구성하는 과제이다.

信忠은 身元이 다소 불분명한 채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모두 나오는 인물이다. 一然은 그의 이야기를 구성하면서, 『삼국사기』 같은 자료에 국한하지 않았고, 『삼국사기』 같은 성격의 인물 창조에 머물지 않았다. 『삼국사기』와의 200여 년의 거리만큼이나 일연이 신충을 그리는 시각과 시야는 달랐다.

일연의 신충은 이제 논의할 ‘자료 誤讀’의 문제를 넘어서면,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 말하는 소급적 연속성의 변경과 수정을 일으킨 결과라고 보인다. 소급적 연속성은 자칫 ‘사기(cheating)’로 보일 수 있다. 독자(관객)에게

9) 류현주, 「디지털 스토리텔링 시대의 내러티브」, 『현대문학이론연구』 제24집(현대문학이론학회, 2005), 128면.

10) 단편화(fragmentation)는 연속성(continuity), 정본(canon), 일관성(consistency)으로 이루어지는데, 연속성은 다시 콘텐츠간 연속성과 소급적 연속성으로 나뉜다. 서성은, 앞의 책, 50면.

11) 위의 책, 51면.

사기로 몰리지 않아야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성공한다. 신충이 단속사의 창건 주체가 되자면 『삼국사기』의 기록만으로는 충돌하는데, ‘스토리의 결핍을 알고, 그 결핍을 즐기며, 후속서사를 통해 그 빈칸을 채우려는 것, 즉 타자의 결핍을 알고 다른 타자를 통해 그 결핍을 채우려는’¹²⁾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방법으로 설명하자면, 일연은 자료건 이야기의 전개건 그만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 증거가 신충 이야기 끝에 붙인 ‘闕疑’이다. 의문의 여지를 남기는 것은 이야기의 증식을 열어두는 것과 같다.

아울러 〈원가〉를 읽으면서 지나치게 역사서 기술의 大綱을 『삼국유사』에 보수적으로 적용한 나머지의 狹量을 경계한다.

2. 단속사와 避隱

斷俗寺의 창건 경위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다르게 나온다. 전자는 李純이, 후자는 信忠이 景德王 22년(763)에 지었다고 전한다. 임금과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의 계기는 서로 비슷하다. 『삼국유사』의 기록은 一然이 『삼국사기』의 해당 기록을 잘못 읽어 저지른 실수라고 알려져 있다.

다만 일연은 『삼국유사』의 같은 자리에 다른 기록을 하나 추가해 놓았다. 이순(또는 이준)이 단속사를 창건한 것은 景德王 7년(748)이라 하고, 이는 『삼국사기』의 기록과 다르니, 함께 실어 闕疑, 의심스러운 바를 남긴다는 것이다. 단순히 일연의 誤讀에서 온 실수가 아니지 않을까,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대목이다.

이런 문제의식과 함께 나는 일연이 단속사와 맺은 인연을 전제하여 〈怨歌〉의 해석을 시도해 본 적이 있었다. 그때의 결론을 소개하자면 이렇다.

12) 위의 책, 93면.

知天命의 나이에 접어들며 겪었던 정치적 소용돌이를 일연은 그의 만년에 신충의 일생을 그리며 떠올렸을 것이다. 신충과 정안을 과거와 금세에 놓고 삶의 곡절을 풀었다. 삶의 결과란 누구도 뒤집을 수 없지만 거기엔 늘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따르기 마련이다.¹³⁾

최씨무인정권의 후계자 崔怡는 아들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아버지 崔忠獻에게 받은 정권을 대대로 물려주어야 하는 그로서는 낭패였다. 부인은 鄭叔瞻의 딸이다. 정숙침은 아버지의 강력한 후원자였으며, 숙침의 아들 鄭晔은 자신의 처남이자 복심이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집안에서 온 아내가 아들까지 낳아준다면 더할 나위 없으려면, 마지막 조각을 맞추지 못한 그림은 끝내 불행으로 얼룩졌다. 결국 최이는 기생인 서련에게서 두 아들을 얻었다.

두 아들은 萬宗과 萬全, 행실이 좋지 못해 송광사로 보내 승려로 만들고, 각각 쌍봉사와 단속사의 주지로 있게 해서 얻은 이름이다. 쌍봉사는 전남 화순에 있으니 경남 산청의 단속사와는 지리산의 맥을 타고 있는 셈인데, 거처가 것처럼 달랐어도 둘은 합작하여 온갖 행패를 부렸다. 엄청난 금, 은, 쌀을 가지고 돈놀이하여 재산을 늘려 나갔다. 게다가 그의 문도를 자처하는 무뢰배가 들끓어 민심은 날로 흉악해졌다.

그러나 자신의 최후가 다가온 것을 안 최이는 어쩔 수 없이 만전을 환속시켜 대를 잇게 한다. 그가 바로 崔沆이다. 1249년의 일이었다.

바로 그 해, 일연의 43세 때, 처음 주지의 자리를 얻어 나간 곳이 남해의 定林社이다. 절을 세운 정안이 바로 최이의 처남인 그이고, 이런 연줄로 세속의 권력이 영킨 곳에 일연 또한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怨歌>의 해석을 위해 한번 둘러가야 했던 먼 배경이다.

이 노래를 지은 신충은, 일연이 『삼국유사』에 적은 대로라면, 만년에 벼슬

13) 고운기, 「怨歌와 避隱의 논리」, 『韓國學論集』 제28집(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6), 243면.

을 버리고 은거하는, 그가 택할 최선의 길로 나아갔다. 이것이 목숨을 보전할 방법이기도 했지만, 허망한 세상에서 보람 있게 생애를 마감하고, 널리 남에게도 유익한 결과를 내는 선택이었다. 〈怨歌〉를 부르며 왕의 충애를 간구하던 장년 시절의 그와는 달랐다.

신충과 비교되는 일연 시대의 사람이 정안이다.

당대 권력자의 腹心, 避隱을 꾀했으나 신충과 달리 끝내 완전한 피은을 실행하지 못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던 사람이다.

실로 정안은 혼란한 시대에서 그 시대의 운명을 받아들이며 살다간 사람이었다. 그의 아버지 정숙침은 공물로 올리는 물품을 독점하는 상권을 잡았고, 끊임없이 최씨정권에 끈을 대어 드디어 중앙정계로 진출한다. 이 같은 정숙침의 집요한 노력에 정안은 한편 동조하고 한편 현실정치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 했다. 최이가 그의 재주를 아껴 벼슬을 주지만, 권력을 전횡하는 그들의 말로가 예견되었던지 낙향하고 만다. 그러나 인연을 완전히 뿌리치지 못해 소극적으로나마 협조하는데, 대장경 간행사업에 큰 재산을 내놓은 일이 그렇다. 정안이 다시 정계로 불려나간 것은 최항이 권력을 이어받은 다음이었다. 신충처럼 생각했다면 이때 정안은 가지 말았어야 했다.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할 목적으로 대대적인 숙청작업을 벌인 최항은 여기에 정안도 포함시킨다. 촌수로 외숙부이나 실재는 깔끄럽기만 했기 때문이다. 벼슬을 주며 불러올린 것은 실상 가까이서 감시할 목적이었다.

살얼음판 같은 상황에서 일연과 정안은 인연을 맺었었다. 그들은 정안의 一時退去 중 남해에서 만났고, 이 만남은 인근 단속사에 있던 萬全 시절의 최항과도 이어졌다. 단속사는 정안, 최항 그리고 일연을 만나게 한 운명적인 장소였다.¹⁴⁾ 먼 훗날, 『삼국유사』를 편찬하며 일연은 남해 寓居 시절에 찾

14) 일연은 「信忠掛冠」 조에 단속사와 그 주변을 소개하면서, “남진 영정이 금당 뒤의 벽에 지금도 걸려있다. 남쪽의 마을 이름이 俗休이거니와, 이제 잘못 전하여 小花里라 한다.”고 적었는데, 이는 『삼국유사』에 흔히 발견되는 현장 답사 후기로 읽힌다. 이로써 보전대 단속사는 일연의 남해 시절에 자주 왕래하던 절의 하나일 것으로 보아 크게 무리

아본 단속사를 避隱 편이 함의할 장소성에 매우 적절하다 여기지 않았을까. 노래와 이야기로 구성하며 ‘信忠掛冠’이라 題한 이조를 避隱 편의 대표로 삼았을 것 같다. 避隱 편에 실린 10개조를 비교해 보면 확실히 그렇게 다가온다.

정안의 마지막은 流配와 擲殺로 끝나고 말았다. 이 같은 정안의 비극적 생애를 보며, 일연은 옛 신라의 신충을 떠올렸으리라고, 그러면서 <원가>의 의미를 되새겼으리라고 나는 추정하였다.¹⁵⁾ 그러한 추정은 지금도 변함없지만, 이제 여기서 일연이 신충의 생애를 실으면서 꾀한 서사적 의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변증해 보고자 한다.

일연은 ‘信忠掛冠’조를 구성하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 着目하였다.

첫째, 신충이 물러나 단속사를 짓고 여생을 마감하였다. <원가>를 소개하되, 後句가 사라진 사실을 돋보이게 한다. 둘째, 변화한 신충의 만년을 시를 지어 찬미한다. 그것으로 <원가>에서 사라진 後句를 보완한다. 이로써 <원가>가 재구성된다.

일연이 이런 설정 아래 ‘信忠掛冠’을 구성하였다면, 단속사와 신충 그리고 <원가>는 이제까지 논의와 조금 다른 길을 가야 한다. 특히 <원가>의 역할은 노래를 넘어 노래 以後에 있다.

3. 誤傳의 實虛

信忠이라는 인물이 어떤 연유로 세상을 피해 은거해 들어갔는가? 여기서 『삼국유사』의 이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

이야기는 避隱 편에 실려 있다. 이 편목이 지닌 뜻은 ‘避世隱居’로 풀이된다. 거친 세상을 피해 숨어 산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은은 난세에서만만이 일

가 없다.

15) 고운기, 앞의 논문, 234면.

아니다. 실로 어느 때건 지혜로운 자가 선택하는 지혜로운 처신 방법이다.¹⁶⁾

일연은 신충과 〈원가〉의 이야기를 크게 두 대목으로 나눠 썼다.

먼저 전반은 신충이 세상에 쓰임을 받는 대목이다. 신충은 효성왕 潛邸時 일종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잣나무에 대고 맹서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신충이 왕을 원망하며 노래를 지어 그 잣나무에 걸었으니 바로 〈원가〉이다. 생생하던 나뭇잎이 갑자기 말라 떨어져 버렸다. 왕은 곧 자신의 무심함을 반성하고 신충을 불러들였다. 角弓¹⁷⁾의 깨달음이다.

여기에 〈원가〉라는 노래가 극적으로 개입된다. 어쨌건 노래는 젊은 야심가의 욕망을 채우는 데 기여하였다.

이야기는 은거하는 후반으로 이어진다. 신충은 효성왕부터 경덕왕까지 두 임금에 걸쳐 높은 직위에 있으면서 충직한 신하의 소명을 다했다. 경덕왕 22년, 두 친구와 더불어 갓을 벗어 걸고 남산(지리산)으로 들어가 두 번씩 불려도 나오지 않았다. 아예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왕을 위해 절을 짓고 복을 빌겠다고 한다. 이 절이 단속사이다.

산으로 들어간 대목에서 우리는 어떤 정치적 변화를 추경해 보지만, 적극적 은거는 목숨을 보전하기 위한 방편에만 있지 않았다.

이렇듯 전/후반으로 나눠 소개한 신충의 이야기는 각각 출처가 다르다. 전

16) 박인희는 避隱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세속적 차원을 넘어선 삶'이어서, 피은 편에는 '자신들이 믿는 신념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실었다고 하였다. 「〈信忠掛冠〉과 〈怨歌〉 연구」, 『新羅文化』 제28집(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6), 304면. 이 견해에 동의하나, 그것은 피은 편 주인공에게서보다 편찬자인 일연에게서 더 쉽게 발견된다고 보인다.

17) 박인희는 『詩經』 小雅 편의 角弓 장을 참고하여 각궁은 골육관계로 보고, 『冊府元龜』의 김충신은 성덕왕의 從弟라는 기록에 근거하여 신충을 김충신이라 한다면 곧 효성왕과 각궁이 된다고 보았다.(위의 논문, 306~7면) 이에 대해 서정목은 승경(효성왕)이 성정왕후의 3자, 현영(경덕왕)이 소덕왕후의 1자인데, '두 왕자의 싸움에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변질을 거듭한 신충의 처지를 가장 잘 상징하는 교훈'(「원가의 창작 배경과 효성왕의 정치적 처지」, 『시학과언어학』 제30집, 시학과언어학회, 2015, 54면)이라고 보았다. 박인희는 각궁이 형제 사이를, 서정목은 각궁의 교훈을 나타낸다고 한 것이다.

반부는 알 수 없고, 후반부는 아무래도 『삼국사기』라고 보아야겠다. 출처 불명의 전반부는 향가인 <원가>를 중심으로 한다. 노래와 함께 전해진 口碑資料일 수 있다. 이렇게 신충의 존재를 알게 된 일연이 『삼국사기』에서 그의 이름을 발견했을 때 자못 흥분했을 것 같다. 『삼국사기』에 실린 그것은 신충이 말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호사보다 소박, 권력보다 명예를 찾는 아름다운 마무리였다. 避隱 편에 넣어 아주 제격인 사람이라고, 일연은 쾌재를 불렀으리라. 그래서 후반부를 작성하는데, 흥분한 나머지 『삼국사기』의 해당 기록에서 짐짓 한 글자 잘못 읽었을까? 이른바 일연의 誤讀에 따른 誤傳이다.

문제의 '誤傳'이라 한 데를 다시 살피려 한다. 우선 『삼국유사』에서 신충의 掛冠과 은거한 일을 적은 대목이다.

①景德王王卽孝成之弟也二十二年癸卯 ②忠與二友相約 掛冠入南山 ③再徵不就 落髮爲沙門 ④爲王創斷俗寺居焉

이를 직역하여 풀어보면 이렇다.

- ① 경덕왕 왕은 효성의 동생이다. 22년 계묘년이였다.
- ② 신충이 두 친구와 더불어 약속하여 갓을 벗어 걸고 남산으로 들어가
- ③ 두 번이나 불러도 나오지 않고,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
- ④ 왕을 위해 단속사를 창건하고 살았다.

신충은 辛苦의 세월이 지난 다음, 부질없는 세상의 뜬 영화에 더 이상 미련을 버리고, 가볍고 평안한 인생을 살기로 작심하였다. 다만 한 가지, 산문에 들었으니 왕을 위해 기도하는 일로 충성을 대신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의심쩍은 부분이 '두 친구'이다. 왜 하필 두 친구이며, 그들은 누구일까? 일연은 아무런 정보도 남기지 않았다.

이제 『삼국사기』로 가보자. 마침 같은 경덕왕 22년에 매우 비슷한 일이 기

록되었다.

①(二十二年) 八月 桃李再花 上大等信忠 侍中金邕 免 ②大奈麻李純
爲王寵臣 忽一旦避世入山 ③累徵不就 剃髮爲僧 ④爲王創立斷俗寺居之

이를 직역하여 풀어보면 이렇다.

- ① (22년) 8월 복사꽃 오얏꽃이 다시 피었다. 상대등 신충 시중 김옹이 물러났다.
- ② 대나마 이순이 왕의 총신이 되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세상을 피해 산으로 들어가,
- ③ 거듭 불러도 나오지 않고,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
- ④ 왕을 위해 단속사를 창립하고 살았다.

위의 『삼국유사』의 기록과 거의 같다. 특히 ②, ③, ④는 내용도 내용이려니와 문장의 구조까지 닮았다. 일연이 『삼국사기』의 이 대목을 읽고 가져다 썼다고 보아 무방하겠다.

그런데 누가 산으로 들어가 절을 짓고 살았는지, 『삼국유사』와 『삼국사기』가 각기 그 주체를 달리하고 있다.

전자는 신충과 두 벗이, 후자는 이순이 문장의 주어다.

어찌다 이렇게 달라졌을까? 주어는 행위의 주체를 나타내는데, 나머지 내용은 거의 같으니, 이제 주어만 따져보면 되겠다. 일연은 『삼국사기』의, “상대등 신충, 시중 김옹이 물러났다. 대나마 이순이 왕의 총신이 되었는데…”라는 곳에서, 신충과 김·이 두 사람을 한 무리로 보고, 이를 묶어서 ‘신충과 두 벗’이라 요약해 주어로 쓴 것 같다. 이 때문에 단속사를 지은 이로 『삼국사기』가 이순 한 사람만 지목한 것과 달라진 것과 달리 세 사람이 된다.

일연이 세 사람을 한 무리로 본 데는 까닭이 있다. 해당 부분을 읽다가 결정적으로 한 글자를 달리 보았기 때문이다. 위의 원문에서 ①과 ②를,

上大等信忠 侍中金邕免 大奈麻李純 爲王寵臣

과 같이 붙여 읽으면, '상대등 신충과 시중 김웅면 그리고 대나마 이순이 왕의 충신이 되었는데'라고 번역된다. 시중 김웅이 아니라 김웅면이다. 그러면 신충의 '두 친구'가 해결된다. 그들은 김웅면과 이순이다.

일연이 『삼국사기』의 이 부분을 이렇게 읽어 『삼국유사』에 인용하였으리라고 처음 말한 이는 양주동 선생이다.¹⁸⁾ 이것이 誤傳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사실이 그렇다면 맥 빠지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신충과 단속사에는 어떤 분명한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일연이 전하고자 한 '避隱의 아름다움'의 성립 여부가 거기 달려서이다. 다만 이런 용도 때문에 왜곡을 서슴지 않았으리라 보기는 어렵다.

일연은 같은 자리에 다른 기록, 곧 경덕왕 7년에 이준 또는 이순이 단속사를 지었다고 적었다. 연도가 다르고 지은이는 앞서 나온 이순과 같은 인물인지 분명하지 않다. 경덕왕 7년에 처음 짓고 그새 허물어져 경덕왕 22년에 와 다시 지었는지도 모른다. 의심만 남길 뿐(闕疑), 뒷날 사실의 확인을 기대하며 둘 다 남겨둔다(兩存之)는 말까지 덧붙였다. 일연 당대에 이르러서는 사실 절의 창립자에 대한 설이 분분했을 것이다. 그 사이 무려 600여 년의 세월이 흐르지 않았는가.

유감스럽게 일연이 闕疑하여 남긴 과제를 풀자니, 이제도 더 발견된 자료나 새로 드러난 사실은 없다.

4. 이야기의 增殖

일연은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의 자료를 가지고 '信忠掛冠'조를 엮었다. <원가>의 배경담, 『삼국사기』의 단속사 창건 기사, 이준(순)의 단속사 창건 전승

18) 梁柱東, 『增訂 古歌研究』(일조각, 1965), 609~611면.

담 등이다. 이준(諱)의 이야기는 주류에서 벗어나지만, 일연이 『삼국사기』의 기록을 오독하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의 증거가 될 수 있어서 중요하다. 그렇다면 진상은 어떻게 되는가?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이야기의 흐름이다. 현역에서 은퇴한 관료가 산을 찾아 절을 짓고 승려로서 살아간다. 이것이 큰 줄거리이다.

그런데 같은 줄거리를 두고 주인공이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서 둘로 나뉘었다.

『삼국유사』는 주인공이 신중이고, 절에서 왕의 복을 빌며 승려가 되었다. 〈원가〉를 지어 부르며 세속의 자리에 연연하던 사람이 절을 짓고 들어가 살아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다. 避隱에 매우 적절히 들어맞는 행동이자 불교에 귀의까지 하였으니, 일연은 贊으로 그 생애의 아름다움을 기렸다.

『삼국사기』의 주인공인 이순은 다르다. 경덕왕 22년 조는 그가 어느 날 문득 벼슬을 버리고 절로 갔다고 했으나 여기까지는 서론에 지나지 않는다. 본론은 이제 시작이다.

後聞王好樂，卽詣宮門，諫奏曰，“臣聞，昔者桀紂荒于酒色，淫樂不止，由是政事凌遲，國家敗滅。覆轍在前，後車宜戒。伏望大王改過自新，以永國壽。”王聞之感歎，爲之停樂，便引之正室，聞說道妙，以及理世之方，數日乃止。

왕이 지나치게 好樂한다는 말을 듣자, 이순은 은거하던 절에서 글을 짓되 桀紂의 예를 들면서 간곡히 설득하고, 따로 궁으로 왕의 초청을 받아 세상을 다스리는 도리를 설파하였다는 대목이다. 이것이 중심이다. 요컨대 이순은 주인공으로 내세워 유교적 신하의 충정을 설파했다. 이야말로 『삼국사기』의 『삼국사기』다운 결말이다.

저자와 책의 성격에 따라 ‘같은 이야기’도 ‘다른 주제’로 쓰인다. 12세기 초의 유교적 『삼국사기』와 13세기 말의 불교적 『삼국유사』가 달라지는 지점이다.

이런 예를 하나 더 들어볼 수 있다.

장보고로 알려져 있는 궁파(『삼국유사』) 또는 궁복(『삼국사기』)의 이야기이다. 이 또한 두 책이 현저히 다른 내용을 싣고 있다. 그런데 그 달라진 까닭이 誤讀 또는 誤傳과 거리가 멀다. 신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도의 문제이다.

먼저 『삼국유사』의 「신무대왕 열장 궁파」 조의 궁파 이야기다.

신무왕의 이름은 우징이다. 즉위 전, ‘하늘을 같이하지 못할 원수’인 민애왕 김명과 심각하게 대치했다. 당초 흥덕왕이 죽은 뒤 균정과 제룡 사이에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다. 김명은 시중 이흥과 함께 제룡을 밀어 회강왕으로 세웠다. 이때 균정을 죽였다. 얼마 안 있어 김명은 회강왕을 죽이고 자신이 아예 왕이 되었다. 그런데 우징은 균정의 아들이다. 그가 김명을 원수로 여기는 까닭이다. 김명은 회강왕을 부추켜 균정 곧 우징의 아버지를 죽이게 했고, 끝내 회강왕마저 죽인 다음 자신의 야망을 달성한 사람이다. 민애왕이 된 것이다.

우징은 측근과 군사를 착실히 키워 드디어 민애왕을 쳤다. 여기서 궁파의 역할이 컸다. 신무왕에 오른 우징은 궁파와 한 즉위 전의 약속, 곧 궁파의 딸과 혼인하겠다는 계획을 지키지 않았다. 배신이요 전형적인 兎死狗烹이다.

신무왕은 궁파가 늘 걱정거리였다. 그런데 열장이 궁파를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왕으로서서는 기꺼이 허락하였다. 열장은 궁파를 만나 자신 또한 왕에게 버림받고 왔노라 말하였다. 궁파를 죽이려는 계책의 출발이었다. 왕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궁파를 속이는 데 적당한 방법이었다. 그렇게 안심시킨 다음 열장은 그의 목을 베었다.

이제 『삼국사기』의 「신라본기」에 그려진 궁복 이야기이다.

같은 사건을 적어도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달랐다. 김부식의 시대는 군신의 윤리를 유교의 논리로 세우고 있었다. 궁파를 궁복이라 표기한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자.

먼저 민애왕 1년에 우징은 궁복에게, “(민애왕은) 임금과 아버지를 그릇되

게 죽었으니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 장군의 군사를 빌려 원수를 갚고자 한다.”고 하자, 궁복은 ‘정의를 보고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라며 도왔다. 정의가 중요하다. 우정은 신무왕이 되었다. 이어 문성왕 7년에 왕이 궁복의 딸을 맞이해 둘째 왕비로 삼으려 하자 조정의 신하가 ‘섬사람의 딸’이라며 반대하였다. 혼인의 대상이 문성왕인데, 혼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성왕은 신무왕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듬해, 궁복이 딸의 일로 반심을 품자, 염장이 나서 단신으로 들어가 ‘거짓으로 나라에 반역한 것처럼’ 궁복을 속이고 죽였다.

궁복의 도움, 딸의 혼담, 염장의 궁복 제거라는, 김부식이 기록한 이 세 가지 에피소드가 하나로 연결되어 『삼국유사』의 궁파 이야기가 되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크게 두 가지가 다르다.

먼저 우정, 곧 신무왕이 궁복(파)과 한 약속이나 배신은 『삼국사기』에 아예 없다. 그저 궁복이 의리를 내세워 신무왕을 도왔고, 신무왕 또한 평정 후에 感義軍使로 삼고 식읍 2천 호를 봉해 준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군신간의 의리의 문제를 다룰 뿐이다. 민애왕은 국정 질서를 어지럽혔고, 심지어 제 손으로 세운 왕도 죽였다. 그런 자를 제거하는 것이 정의요 군신간의 의리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다.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혼담이다. 약속 같은 것은 없고, 우정(신무왕)과 궁복 사이의 거래가 끝나 7년이 지난 다음, 문성왕이 궁복의 딸을 후비로 맞이하려 했다. 문성왕은 신무왕의 아들이다. 아버지들 사이에 목계가 있었는지, 궁복의 힘을 얻으려 문성왕이 시도한 결혼정책이었는지, 김부식은 아무런 소식을 전해주지 않는다.

같은 사건을 두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이렇듯 많이 다르다. 그러면 일연은 사건의 전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썼을까? 이 또한 誤傳 아닌가?

달라진 결정적인 이유를 찾자면 『삼국유사』의 다음 대목이다.

協心同力, 擧兵犯京師, 能成其事. 既篡位, 欲以巴之女爲妃

이는, “(우징과 궁복이) 마음과 힘을 함께 하여 군사를 일으키고 서울을 쳐서, 그 일을 이룩해 냈다. 왕위를 빼온 다음, 궁파의 딸로 왕비를 삼고자 했으나...”라고 번역되는데, 既篡位에 이어지는 문장인 欲以巴之女爲妃의 주어가 신무왕(우징)으로 설정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 두 문장 사이에는 신무왕이 왕위를 빼앗았으나 곧 죽고 아들 문성왕이 즉위한 일이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주어가 문성왕이 되면 이후의 전개가 『삼국사기』와 거의 일치한다.¹⁹⁾

결론적으로 따져 보면, 이 또한 앞서 신충의 경우처럼 일연의 誤傳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誤傳을 따지는 데 있지 않다. 여기도 일연이 본 어떤 다른 자료의 존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어느 쪽이건 의도를 갖고 편찬에 임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것이 곧 역사관이다. 김부식에게는 전형적인 ‘군신 간의 의리’가 더 눈에 들어왔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일연은 물고 물리는 ‘배신의 악순환’이 더 눈에 들어왔다. 그것이 각각의 역사관을 만들었다.

일연은 자기 시대의 비극을 신라의 신무왕-궁파-염장의 관계 속에서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궁파가 반란을 피하고 염장이 궁파를 죽이는 사건은 무신정권 시대를 살다간 일연에게 어떤 既視感 같은 것을 주었다. 최충헌이 왕을 갈아치우고 왕이 최충헌을 죽이려던 사건²⁰⁾은 특히 그렇다. 신무왕과 궁파의 사건을 떠올려 역사의 교훈으로 삼자는 의도가 분명하다. 목숨을 겨

19) 그래도 다른 것은 혼인의 약속과 대상이다. 『삼국유사』에서는 우징(신무왕)과 궁파의 딸이 혼약의 대상인데, 『삼국사기』에서는 약속 자체가 없고, 대상 또한 문성왕과 궁복의 딸로 바뀐다. 신충이 두 벼과 더불어 절을 지으러 간다는 대목의 착오와 그 경위가 비슷해 보인다.

20) 『고려사절요』, 희종 7년(1211) 12월.

눈 칼날이 난무하자 일연은 먼 시대의 배신극에서 자기 시대를 읽고 있는 것이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최씨정권 말기에 또 한 번 소용돌이쳤다. 그는 무인 김준이 최씨정권의 4세주 최의를, 이어 같은 무인 임연이 김준을 죽이는 광경을 목격하였다.

사실 정중부에서 최충헌에 이르는 물고 물리는 살육의 참극은 일연의 생전에 일어난 일이다. 그로서는 전해 들은 이야기였다. 이에 비한다면 최의와 김준의 죽음은 각각 1258년인 일연의 52세, 1268년인 62세 때의 일이다. 2년 뒤에는 임연마저 죽는다. 몽골과의 오랜 전쟁이 그를 괴롭혔지만, 나름 정권은 안정되어 있던 시기가 지난 다음, 이때 요동친 권력 싸움은 자신과 직접 연관된 위협이었다. 배신의 시대였다. 목숨은 경각이었다. 일연은 궁과의 삶이 거기서 새삼스레 떠올랐다.

그렇다면 신충의 이야기에서도 일연의 의도를 잘 보아야 한다. 일연은 <원가>를 읽은 어느 자료처럼, 신충의 단속사 은거를 『삼국사기』만이 아닌 다른 자료를 통해 읽었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삼국사기』의 해당 기록이 완벽히 사실이라는 보장 또한 없다.

신충의 일은 일연으로부터 무려 600여 년 전이다. 부실한 기록과 지나치게 오래된 口傳 사이에서 어떤 변이가 일어났는지 측정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일연은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신충과 단속사를 이어보고 싶었을 것이다. 그의 의도란 避隱 편에 맞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 찾기였고, 그래서 이야기는 어떤 원리의 작동 아래 증식되어 간다. 원리는 무엇일까? ‘이야기로 잘 꾸며진 사료의 경우 굳이 어느 시대의 누구라고 명시한 문구만 괄호 치면 그것 또한 정형화된 설화의 패턴’²¹⁾이라는 주장의 그 패턴이다. 신충의 이야기도 무척

21) 신종원, 「선화공주 지증왕비 사료읽기 관련 구술자료 소개」, 『新羅史學報』 제50집(신라사학회, 2020), 469면. 이는 전북 익산의 미륵사지 서탑의 발굴 결과에 ‘엄연한 사적을 두고 고려시대의 선화공주 스토리텔링에 맞추다 보니 유적·유물에 혼선’을 빚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이야기 사료에 대한 姑息的 접근을 경계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사실적인 장치를 동원하고 있으나 실은 이 설화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5. ‘後句亡’과 ‘吾皇’

일연은 避隱 편에 들어갈 적정한 인물을 찾고 있었다. 거기서 신충이 나타났다. 이야깃거리도 풍부했다. 먼저 신충이 <원가>라는 노래를 지은 배경담은 그것대로 맥락이 닿았다. 아심가의 짧은 날이 옥망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노래를 이르는 지금의 제목은 본문의 ‘怨而作歌’에서 따왔다.

문히 자시
 꺾을 안들 이우리디매
너 옛데 니저이신
 울월던 느치 겨샤온티
 둑 그림제 옛 모셋
 널 물결 애와티듯
 중사 브라나
 누리도 아쳐론 데여²²⁾

좋은 잣나무가 가을이 와도 제 모습을 간직하고 있듯이 변함없는 사랑을 맹서했던 임으로부터 받은 언약은 삶의 기둥이었다. 그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일이었다. 그러나 같은 달빛이 비취도 물결은 흘러서 달라져 있듯, 언약이 부질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 세상은 애처롭기만 하다. 영화로

22) 이는 양주동의 해석이다. 김완진의 해석에서 가장 다른 점은 4행(울월던 느치 가시 온 겨스레여)이다. 그는 가을과 겨울을 연관시켜 호응하는 詩想으로 풀이한다. 노래의 맥락으로 보아 더 자연스럽다. 한편 8행은 ‘세상 모두에 잊혀진 等第’로 받아들여야 한다. 박재민, 「〈怨歌〉의 재해독과 문학적 해석」, 『민족문화』 제34집(한국고전번역원, 2010), 265면.

운 미래가 사라진 것은 사랑을 잃은 이의 애처로운 가슴과 같다.

노래를 잣나무 가지에 걸었더니 신이한 일이 벌어졌다. 순수한 서정의 노래로 끝나도 좋았을 것을, 이제 사랑의 고백은 정치적인 의미로 확대되어 간다.²³⁾

이런 신충의 존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보면 실재 인물이 떠오를 수도 있다.

일찍이 ‘신충의 掛冠은 김양상 세력의 부상과 관련된 것’²⁴⁾이라고 본 논의로부터 이 이야기가 역사화하더니, 이후 보다 구체적인 견해²⁵⁾를 받아들여 신충은 ‘신라의 왕족으로서 성덕왕·효성왕·경덕왕 대의 중요한 정치인 중 한 사람’²⁶⁾이라는 데까지 나아갔다. 경덕왕 16년에 상대등에 올라 왕권강화 정책을 펼치고, 17년에 왕자 건운(혜공왕)의 탄생에 일조하다 이로 ‘비롯된 일련의 사태를 책임지고자’ 22년에 물러난 그가 바로 ‘성덕왕의 從弟’ 신충이라고 정리²⁷⁾하였다. ‘신문왕의 이모집 5촌 조카’이며 효성왕의 ‘혜명왕비와는 6촌’²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이는 모두 ‘이야기로 잘 꾸며진 사료’에 너무 심각하게 접근해 벌어지는 일이 아닌가 한다. 역사상의 어떤 인물이 모델이 될 수 있으나, 모델은 어디까지나 모델로 끝나 바람직하다.²⁹⁾ 정치적 야심이건 집안의 명운이건,

23) 잣나무가 말라간 것을 매우 기발한 ‘정치적 트릭’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서정목, 『삼국유사 다시 읽기』(글누리, 2018), 101면.

24) 이기백, 『신라정치사연구』(일조각, 1981), 219~226면.

25) 김수태, 『신라중대 정치사연구』(일조각, 1996), 89~90면.

26) 신재홍, 앞의 논문, 208면. 신재홍은 이어 〈원가〉의 탄생 배경을 상정하는데, 신충은 승경(효성왕)을 돕는 역할을 하지만, 실은 승경의 반대파인 성정왕후 세력과 가까웠던 듯해, 왕으로 즉위한 후 멀리하게 되었다거나(위의 논문, 212면), 중국과의 외교 관계 속에서 ‘문장과 바둑’을 잘하는 신라 사람의 대표로 신충이 천거(위의 논문, 214면)된다 고까지 말한다.

27) 박인희, 앞의 논문, 310면. 그러므로 신충이 ‘불교에 귀의한 것은 上帝의 노여움을 풀기 위한 것’이며 이는 ‘왕실의 안녕을 도모, 신하된 도리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위의 논문, 311면)이라고까지 말한다.

28) 서정목, 앞의 책, 39면.

29) 일찍이 향가의 작자 이름이 가공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었다. 최철, 『향가의 문학적 해석』(연세대학교 출판부, 1990), 90면 참조. 설화적 전승에 기반 한 작품 이해의 선상

실존한 신중의 피 끊는 짧은 날을 확인하면 그만이다. 그것은 이 노래의 여덟 줄 속에 잘 드러나 있다.³⁰⁾

작자 문제와 더불어 <원가> 논의의 다른 쟁점 하나가 後句이다. 노래 끝에 일연이 굳이 ‘後句亡’ 곧 후구가 없어진 사실을 적어놓았기 때문이다.

향가 가운데 사녀가라 불리는 가장 전형적인 노래의 형식은 열 줄이다. 열 줄은 내용상 4+4+2로 나뉜다. 마지막 두 줄이 노래의 맺음 같은 기능을 한다. <원가>는 여덟 줄만 적힌 채 끝났다. 그러면서 후구는 없어졌다고 했는데, 『삼국유사』 안에서 향가를 실으며 이렇듯 후구 亡失의 분명한 정보를 준 경우는 여기 한 군데 뿐이다. 후구 없이 끝나는 여덟 줄 향가도 있으니 이 같은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일연이 망실의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최근 들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제시되었다. 가장 눈에 띄기로는 “4+4+2(後句)’로 이해되던 10구체 향가가 원래는 ‘3(2+후렴)+3(2+후렴)’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었을 가능성을 타진³¹⁾한 것이다. 곧 후구를 후렴으로 보았다. 그래서 <원가>를 이 형식으로 구성해 보이면,

物叱好支栢史 秋察尸不冬爾屋支墮米
汝於多支行齊教因隱 仰頓隱面矣改衣賜乎隱冬矣也

後句 (亡)

月羅理影支古理因淵之叱 行尸浪 阿叱沙矣以支如支

이었다. 치밀한 변증까지 나가지 않았으나 되새겨 볼만하다 생각한다.

30) 이는 최근에 해석된 결과를 놓고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특히 마지막 두 줄, ‘(달의) 모습이야 바라보나/ 세상 모두에 잊혀진 等第여’가 그렇다. 等第는 功에 대한 補償을 말한다고 한다. 박재민, 앞의 논문, 265면 참조.

31) 김성규, 「향가의 구성 형식에 대한 새로운 해석」, 『국어국문학』 제176집(국어국문학회, 2016), 177면.

兒史沙叱望阿乃 世理都 之叱逸鳥隱第也

後句(亡)

와 같이 된다고 한다.³²⁾ 그러나 이것으로 ‘後句亡’을 설명하기는 여러 면에서 의문이 든다. 먼저 독립된 서정시에 ‘3(2+후렴)’을 적용할 때 생기는 형식의 어색함이다. 후렴구를 가진 민요는 선후의 교환창에서 자연스러웠다. 이렇듯 후렴이 민요에서 일반적인 가창 형식으로 상용되지만, 향가는 민요로부터 돌발하는 최초의 서정시임을 인정한다면, 10구체의 4+4+2는 매우 세련된 형식미의 획득이었다. 더욱이 열 줄의 독립 형식에서 妙用된 후구가 후렴으로 굳이 역행할 이유가 없다.³³⁾

후구는 후구일 뿐이고, 그런 후구가 사라졌다는 일연의 強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따질 일만 남았다.

그렇다면 과연 마지막 두 줄은 어떤 내용이었을까? ‘원망하여 노래를 지었다’고 하나, 노래가 원망만을 표현했을 리는 없다. 원망의 어떤 승화가 이 두 줄을 통해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는 〈祭亡妹歌〉 같은 열 줄짜리 향가에서 흔히 나타나는 패턴이다. ‘彌陀刹에 만나기 고대하며 도 닦아 기다린다’는 것이다. 이 정도 승화까지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悔恨의 정서는 노래에서 직설적이기 보다 〈千手大悲歌〉처럼 ‘나에게 끼치신다면 어디에 쓸 자비’라는 詠嘆이 된다. 이 정도 영탄은 승화에 버금간다.

그런데 후구는 사라져 찾을 길 없고, 일연은 다만 신충이 만년에 아름다운

32) 위의 논문, 195면.

33) 서정목이 제시한 ‘5, 6구 亡失說’도 주목하나 아이디어의 참신성에 그칠 듯하다. 서정목은 망실된 두 개의 행이 9, 10행이 아닐 수 있으며, 전반 4개 행이 완전한 하나의 연[stanza]을 이루는 데 손색이 없는 면을 감안하여 읽으면 후반 4개 행이 불완전해 보여, 망실된 부분은 5, 6행이라고 하였다. (서정목, 앞의 책, 164~172면 참조) 그러나 이는 문맥의 자의적인 이해로 보이고, 일연이 명백히 ‘後句亡’이라 한 데 대한 변증이 될 수 없어 보인다. 8행으로 보면서 分節만 새롭게 한 박재민의 견해를 받아들이고자 한다. (『신라향가변증』, 태학사, 2013, 87면)

은거의 길로 들어섰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다. 그것이 『삼국사기』의 誤讀이라도 어쩔 수 없다. 오독이라면 분명 흠이 되지만, 오독하지 않았다면 避隱 편
의 꽃이라 할 ‘신충괘관’은 성립하지 못했을 것이다. 贊을 붙이는 次第에 장년
에서 만년까지 그 생애를 縱觀하되, 사라진 후구에 대신할 역할까지 부여해
보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찬을 읽어보면 이렇다.

功名未已鬢先霜	세상 욕심 다하지 않았는데 귀밑털은 먼저 세고
君寵雖多百歲忙	임금 은총 많다 하나 한 생애가 바쁘구나
隔岸有山頻入夢	저 편이 산 구비 꿈에 자주 어리니
逝將香火祝吾皇	죽을 때까지 향불 피워 우리 임 복 비오리

찬은 <원가>까지 지어가며 세상 욕심 다 부러본 다음의 신충을 소재로 하
였다. <원가>의 내용이 원망에 그쳐있다면, 야심가의 욕망이 세월을 따라 사
라진 다음, 적어도 이런 깨달음이 다가왔으리라는 상상이 그려져 있다. 3행의
'저 편 산 구비'란 피안을 말하는 것이니, 죽음을 앞둔 신충에게 어떤 욕심도
부질없다. 복을 비는 순한 마음밖에 달리 무엇이 있으랴. 그저 원망만 그득했
던 <원가>의 앞 여덟 줄 다음에, 등용되어 권력만 누리고 끝났다면 모르지만,
掛冠 후 인생의 다른 경지에 들어섰다면 신충의 생애는 이렇게 마무리해 주
어야 맞다. 실제 잃어버린 두 줄은 회한의 영탄 정도였겠지만 말이다.³⁴⁾

한 가지 짚어볼 대목은 贊 마지막의 '吾皇'이라는 말이다.

대부분의 번역자가 이를 '우리 임금'이라 했다. 신충의 단속사 시절을 떠올
리면 당연하다.³⁵⁾ 그런데 2행에서는 君寵처럼 임금을 君이라 했는데 왜 여

34) 참고로 박노준은 '이 노래의 영험함과 특히 이를 지은 신충이 후에 공명을 버리고 속세를 떠나 산사에 묻혀서 불교의 세계에 심취했던 일을 찬양했다고 평하였다. (『신라향가의 연구』, 열화당, 1982, 39면)

35) 金成基만이 "내 가서 향화 피우고 **우리 님**을 축원하리."라고 하였다(『怨歌의 研究』, 『고시가연구』 제12집, 한국서기문화학회, 2003, 57면 참조). 나 또한 당초 '우리 임이

기는 皇일까? 고려의 입장에서 이 글자는 사대의 예에 어긋날 수 있다. 일연 자신 國師의 자리에 올랐으나, 국사 대신 國尊이라 부르는 까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터, 임금을 君이나 王 대신 皇이라 적기가 용이했을까? 그러므로,

中有小菴若無有 그 가운데 작은 암자 없는 듯 있으니
 朝晡但見祝君煙 아침 저녁으로 임금의 복을 기원하는 연기만 보이네
 —普雨, 「臨終偈」

와 같이, 祝君 같은 표현이 적당했을 것이다. 그래서 吾皇을 ‘우리 임금’이 아닌 다른 뜻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다.

당대의 기록 속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자.

㉔殘寇虛張菜色軍 굶주린 도적들 부질없이 설치는데
吾皇專倚玉毫尊 우리 임금 오로지 옥호(玉毫)의 힘만 믿으시네
 李奎報, 「大藏經道場을 稱讚하는 시」

㉕詞中未所盡 시 속에서 못다 한 말을
 盡使上帝知 하느님께 알게 할꼬
 冲止, 「농부들이 가련하여 4월 초하루 빗속에서 짓다」

㉖從吾皇兮自適其適 우리 옥황상제 뜻을 따라 내 스스로 유유자적하리라
 許筠, 「운명을 풀이하는 글」

㉗에서 이규보가 쓴 吾皇은 ‘우리 임금’이 분명해 보이는데, 대장경의 간행에 맞추어 부처의 영력을 찬양하므로 吾皇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다시 생각하게 한다. ‘우리 부처님 옥호의 위대함 나타내네’와 같이 번역할 수 있다. 吾皇

라 번역하였다. ‘우리 임’이 임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과 玉毫를 겹쳐 써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와 ㉡처럼, 하느님(옥황상제)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는데, 上帝나 湄皇은 當該 문장(시)의 극존칭대상자에게 붙여야 맞다.

그렇다면 일연의 贊에서 湄皇을 번역하여 ‘우리 임’이라 하고, 뜻으로는 ‘우리 부처님’으로 보았으면 한다.

벼슬을 놓고 절로 들어간 신승이 임금을 위해 복을 빌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부처님에게 비는 것이 당연하다. ‘祝湄皇’은 ‘오황의 (복을) 빈다’가 아니라 ‘오황에게 (복을) 빈다’로 볼 수 있다. 좀 더 부연해 번역하면, “우리 부처님에게 **나라와 임금과 백성의 강녕을 빌리.**”가 된다.

일연이 생각한 신승의 바른 은거는 이렇다. 권력과 함께 한 생애를 보낸 신승, 때를 알아 자리에서 물러나,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지리산 골짜기의 절에서, 부처님에게 왕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그런 신승의 모습으로 <원가>의 잃어버린 두 구절을 자신의 시로 대신해본 것은 아닐까? 그렇게 둘을 묶어보면 이렇다.

좋은 잣은
가을이 와도 쉬 지지 않는다네
너 어찌 잊겠느냐
우르르던 낮의 가버린 겨울이여

달그림자는 옛 못에
흐르는 물결을 애처로워 하는구나
모습은 바라보지만
세상 모두에 잊혀진 登第여

저 편(隔岸), 산 구비는 꿈에 자주 어리니
이제 길이 향불 피워 부처님께 복 빌리

앞에 <원가> 여덟 줄을 놓고 贊의 마지막 두 줄을 이렇게 번역하여 이어

보면 참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원문의 隔岸은 隔句처럼 들린다. 굳이 '後句 亡'이라 밝히면서 두 줄이 사라진 사실을 환기시킨 저변에는 이렇게 補入하려는 뜻이 도사려 보인다. 물론 이렇게 해서 시를 완성시키자는 의도는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하는 '〈원가〉의 재구성'이다.

경남 山淸은 지리산 동쪽 기슭에 자리한 지역의 소읍이다.

이름만큼 맑고 깨끗하기 그지없다. 읍내에서 조금 떨어져 산이 올라가는 쪽, 옛 마을 이름으로 '俗休라는 곳'에 그 이름을 닮은 절 斷俗寺가 있다. 이 절은 두 기의 탑만 우뚝하게 남은 절터이다.

참·고·문·헌

■ 자료

- 『三國遺事』
- 『三國史記』
- 『高麗史節要』
- 『東國李相國集』
- 『惺所覆瓿藁』

■ 저서 및 논문

- 고운기, 「怨歌와 避隱의 논리」, 『韓國學論集』 제28집,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6, 243면.
- 김성규, 「향가의 구성 형식에 대한 새로운 해석」, 『국어국문학』 제176집, 국어국문학회, 2016, 177면.
- 김성기, 「怨歌의 研究」, 『고시가연구』 제12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03, 57면.
- 김수태, 『신라중대 정치사연구』, 일조각, 1996.
- 나병철, 『문학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4.
- 梁柱東, 『增訂 古歌研究』, 일조각, 1965.
- 류현주, 「디지털 스토리텔링 시대의 내러티브」, 『현대문학이론연구』 제24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5, 128면.
- 박노준, 『신라향가의 연구』, 열화당, 1982.
- 박인희, 「〈信忠掛冠〉과 〈怨歌〉 연구」, 『新羅文化』 제28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6, 304면.
- 박재민, 「〈怨歌〉의 재해독과 문학적 해석」, 『민족문화』 제34집, 한국고전번역원, 2010, 265면.
- _____, 『신라향가변증』, 태학사, 2013.
- 서성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커뮤니케이션북스, 2018.
- 서정목, 「원가의 창작 배경과 효성왕의 정치적 처지」, 『시학과언어학』 제30집, 시학과언어학회, 2015, 54면.
- _____, 『삼국유사 다시 읽기』, 글누림, 2018.

- 신종원, 「선화공주·지증왕비 사료읽기 관련 구술자료 소개」, 『新羅史學報』 제50
집, 신라사학회, 2020, 469면.
- 이기백,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1999.
- 이인화,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원리」, 『디지털 콘텐츠』, 한국디지털스토리텔링학회
(<http://www.digital-story.net/>), 2003. 8.
- 조병한, 「아이언맨의 신화적 원형성과 개성화 과정」, 『심리유형과 인간발달』 제21
권 제2호, 한국심리유형학회, 2020, 2면.
- 최 철, 『향가의 문학적 해석』,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0.

논문 투고일 : 2021.04.30 심사 완료일 : 2021.05.24 게재 확정일 : 2021.05.28

Abstract

The Reconstitution of The song of resentment(怨歌)

Ko, Woon-Ke

Sin-chung(信忠)'s story was over 600 years ago from Il-yon(一然). It is very difficult to measure what variation has occurred between poor records and long-standing transmission. Il-yeon would have wanted to continue Sin-chung and Dansoksa(斷俗寺) with certain intentions. The intention was to find the beautiful protagonist of life on the side of Piun(避隱), so the story multiplied under the operations of the narrative principle.

Two points were interpreted anew. First, it is the 'Lost the back phrase(後句亡)' attached to the end of 'The song of resentment(怨歌)'. What were the two lines of the missing epigram? The song cannot have expressed the only resentment. Il-yeon read an article that Shin-chung entered the beautiful hidden path later in life. Even if it misread The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三國遺事). Misreading is flawed, but the story wouldn't have been made without it.

Second, in Chan(贊), it is the 'Our Emperor(吾皇)'. Translated into 'Our Lover', meaning 'Budda'. Shinchung, who entered the temple after leaving his government post, said he would bless the king. Then it is natural to pray to Buddha. Here's what Il-yeon thought of Shin-chung's right secret. Perhaps he replaced the two lost verses of 'The song of resentment'.

Keywords

Sin-chung(信忠), The song of resentment(怨歌), Lost the back phrase(後句亡), Our Emperor(吾皇), Retroactive continuity